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 - 내몽골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를 중심으로 -

김 문 숙
서울대 의류학과 강사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ongolian Costume called YosunOja - Focus on the Medieval Finds from the Tomb Minshui, Neimenggu -

Moon-Sook Kim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7. 30. 접수; 10. 26. 채택)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eval Mongol costume called YosunOja. This dress consists of a blouse and a skirt, and some lines on the waist par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is costume, especially on the medieval remains from the tomb Mingshui in the district of Neimenggu. It can be analysed that this costume has three structu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functional structure, sumptuous one, and the idea of Buddhism. The functional structure consists of the style with a blouse and a skirt, which gives enough surplus for the movement, the back-slash for the ease of the riding, and the dart in the front line which eliminates unnecessary surplus. The sumptuous structure is the many lines of the waist which show the maximization of the decoration, the extraordinary long sleeves, and the use of the expensive gold brocade which shows the wealth of the dresser. And also, the cutting of the fabric into the numerous segment may mean the medieval Mongols believed in Buddhism.

Key Words: medieval Mongol(중세 몽골), YosunOja(요선오자), structural characteristics(구조적특징), functional structure(기능적 구조), decorative structure(장식적 구조), idea of Buddhism(불교적 세계관)

I. 서론

요선오자(腰線褌子)란 의(衣)와 상(裳)으로 구이러한 형태의 요선오자는 몽골 관련 문헌부터 그 명

칭이 등장하고 각종 회화자료에서 몽골인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중세 몽골시기의 무덤에서만 복식유물이 출토되어 중세 몽골인에 의해 착용되기 시작한 복식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몽골의 요선오자는 중세 고려에도 도입되어 고려인들에 의해 착용되었는데, 합천 해인사에서 고려시기의 불복장 유물 중 요선오자 한 점이 발견된 바 있다.¹⁾ 또한 조선 전기 변수묘에서도 세

점의 요선오자가 출토되어, 요선오자는 고려에 도입되어 조선 전기까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따라서 몽골 요선오자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 요선오자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세 몽골인에 의해 널리 착용된 요선오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는 고려시대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요선오자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을 고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세 몽골인들이 착용한 독특한 형태의 복식인 요선오자에 대한 고찰은 복식사적인 시각을 넓히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려면 먼저 요선오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선오자가 즐겨 착용되었던 중세 몽골의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중세 몽골인이 요선오자 이외에 착용한 다른 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선오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착용했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세 몽골 관련 고문헌과 선행연구, 그리고 포(袍)를 착용하고 있는 인물 그림이나 도용 등을 포함한 각종 시각 자료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인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출토복식유물에 대한 실측·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까지 출토된 요선오자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 유물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은 내몽골 명수묘에서 출토된 요선오자를 대상으로 구성방법이나 재단방법 등에 대해 실측·조사연구할 것이다.

II. 몽골 요선오자의 착용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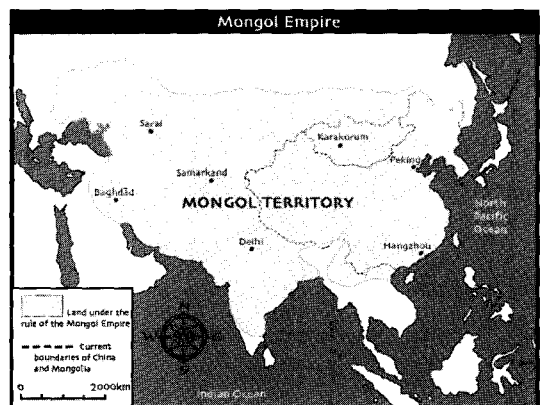
1) 중세 몽골의 시대적 배경

몽골족은 기원전 57년에 유구려(柳久閼; Yuguliu)³⁾나 무골(武骨; Mogol)⁴⁾과 같은 명칭으로 역사서 상

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당대 중기 이후부터는 몽골실위(蒙兀室韋)·몽고리(蒙古里)·몽골(蒙骨) 등의 갖가지 전음(轉音)으로 역사에 나타난다.⁵⁾ 중원에서 요조(遼朝)가 붕괴하고 금조(金朝)가 성립한 12세기 초는 몽골족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때이며, 몽골족이 역사 상 가장 세력을 넓힌 시기는 칭기스 한에 의해 다수의 부족으로 구성된 몽골족이 통일된 12세기 후반부터이다.⁶⁾ 당시 몽골고원에서 유력했던 부족은 달단으로 불리워진 타타르와 네스토리우스파의 그리스도교를 믿는 케레이토, 그리고 일찍이 위구루와 접촉한 나이만이 있었는데, 몽골족은 몽골올로스라는 정치세력을 조직하여 이들 종족을 병합하고 서하(西夏)와 동맹관계를 수립한 후 1211년부터 정복전쟁을 시작한다.⁷⁾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몽골족은 애초에는 북방아시아지역이 근거지였으나 북위시대부터 중앙아시아의 제 세력이 와해되는 틈을 타 서쪽으로 이주하였으며 당시부터 서방문화에 익숙한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2세기 초부터 그 세력을 규합하여 당시 중앙아시아의 서하·서요 등의 세력을 규합하고 이후 중원의 금과 남송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세계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림1> 참조)

몽골에 의한 평화시기(Pax Mongolica) 동안에 몽골은 동서(東西) 장인을 이주시키고 상인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동서 문물의 교류를 주도하였는데,⁸⁾ 중세 몽골의 이러한 범세계적 문화의 교류는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1> 몽골제국의 강역도

2) 중세의 몽골 포(袍)의 유형

중세 몽골의 포는 시각자료 및 유물자료의 분석을 통해 직령포·반수포·칩리 그리고 요선오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도표로 작성하면 <표1>과 같다.

(1) 직령포(直領袍)

직령포란 곧은 깃으로 구성된 포를 말하는데, 몽골인이 직령포를 입은 모습은 다수의 시각자료와 출토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출토유물의 구성적 특성을 고찰해 볼 때 몽골 직령포는 포의 양

옆의 무의 유무에 따라 유형 I 과 유형 II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 I 에 해당되는 복식유물은 <표1>에 서 볼 수 있는 내몽골 집녕로에서 발굴된 인금문능 좌임포(印金紋綾左衽袍)로서 양옆에 무가 없으며 허리까지 오는 긴 트임이 있다.⁹⁾ 돈황 332굴에 그려진 몽골 공양인이 입고 있는 포의 형태가 유형 I 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 II 에 속하는 복식유물로는 산동성 추현 이유암묘에서 출토된 직령포와¹⁰⁾ 칭기스칸의 아우인 조치 카사르의 차남 '에순게(Yesunge)'의 묘에서 출토된 직령포가 있다.¹¹⁾

두 유물의 구성상 공통점은 <표1>과 같이 좌임

<표1> 중세 몽골 포(袍)의 유형

구분	포의 종류		반수포	칩리	요선오자	
	직령포 유형 I	직령포 유형 II				
디자인상 특성	우임직령 긴소매	우임 또는 좌임직령 긴소매 이중깃	우임직령 반소매	우임직령 또는 방령 긴소매 衣裳式 포 허리에 많은 주름	우임직령 긴소매 衣裳式 포 허리에 많은 주름 허리부위의 다수의 횡선	
구성 상 특 성	깃직령	좌임	직령좌임이중깃	방령	직령우임	
	소매	긴소매	반소매	긴소매	긴소매	
	주름	없음	옆주름	옆주름	허리주름	허리주름
	옆트임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무	없음	넓은 무	넓은 무	-	없음
소재의 수	두가지	한가지	한가지	기록없음	세가지 이상	
시각자료	돈황 막고굴 332호	① 적봉시 원보산 원묘 벽화 ② 요녕 부가둔 원묘 벽화 ③ 복건 장악 원묘 벽화 ④ 낙양도북 원묘 출토 도용 ⑤ <사림광기> 중 삼도	① 산서 죽마촌 원묘 벽화 ② 내몽골 후덕 승 원묘벽화 ③ <집사> 중삼 도 ④ 동몽골 석인상	① 낙양 이천 원 묘벽화 ② <집사> 중삼도	① 섬서성 하씨묘 출토 무사용 ② <사림광기> 중 삼도 ③ <元人射雁圖>	
		① 원 세조 초상화 ② 원 태조 초상화 ③ 낙양 이천 원묘벽화 ④ 동몽골 석인상				
출토유물	내몽골 집녕로	① 산동 이유암묘 ② 동몽골 에순게묘	산동 이유암묘	① 감숙 장현묘 ② 동몽골 에순게묘	① 엽호 고묘 ② 내몽골 명수묘	
참고사진						

의 이중깃이고 깃이 겨드랑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깊은 여밈이며 왼쪽 뒤쪽에 트임이 있고 양 옆에 무를 달아 주름을 잡아주었다는 점이다.

중세 몽골 여행기 중 하나인 카르피나의 여행기에는 몽골인의 포의 형태가 직령포로서, 깃은 목부터 소매까지 이어지고 상반신 부분에서 서로 겹쳐지며 왼쪽에 1개, 오른쪽에 3개의 단추가 있고 왼쪽 옆구리에는 허리까지 오는 트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 그리고 테 바이에르(1994)의 동몽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세 몽골 석인상 복식의 연구 중, 10기의 석인상이 입고 있는 직령포의 형태가 폭이 좁고 긴 소매를 하고 있으며, 좌임의 깃으로 일부는 이중깃이며, 버클이 있는 대를 차고 있다.¹³⁾ 이상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직령포의 형태는 유물의 형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중세 몽골 직령포를 착용한 모습은 <표1>의 시각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데, 대체로 상의부분은 몸에 잘 맞는데 특히 허리부분은 튀어나온 배가 두드러져 보일 정도로 여유없이 딱 맞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¹⁴⁾ 또한 <그림2>와 같이 깃은 좌임이나 우임으로 모두 겨드랑이 아래까지 오도록 길고 깊게 여며지며 두 장으로 재단된 깃 즉 이중깃도 보인다. 또한 소매는 좁고 길어 소매를 늘어뜨린 경우 손을 덮고도 상당 부분이 밑으로 늘어져 있다.¹⁵⁾



<그림2> 원 세조 像

(2) 반수포(半袖袍)

반수포란 짧은 소매가 달린 포를 말한다. 동몽골에 분포한 석인상의 복식을 연구한 테 바이에르(1994)는 7기의 석인상이 반수포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긴 호르모이에 소매가 팔꿈치 정도까지 오고 양 허리 밑으로 트임이 있다고 설명한

다.¹⁶⁾

이러한 특징을 갖는 반수포를 착용한 모습은 산서성 죽마촌이나¹⁷⁾ 내몽골 량성현에서 발굴된 무덤의 벽화,¹⁸⁾ 그리고 <집사(集史)>의 삽화 중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산동성 추현의 이유암묘에서도 세 벌의 반수포가 출토된 바 있다.¹⁹⁾ 그 중 하나는 <표1>에 보이는 것으로 발굴보고서에 매작방보 능문주 단수 남겹포(梅鵲方補菱紋綢短袖男夾袍)라고 명명되어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가슴 앞에 매작문이 들어간 네모난 보가 달려 있었으며 묘주인이 가장 위에 입은 것으로, 그 밑에는 심강색 착수겹포(深綠色窄袖夾袍)를 착용하고 있었다. 발굴보고자는 이 두 벌의 복식을 묘주의 관복으로 보았는데 “작매”도안의 보에 의해 문관포복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중세 몽골의 반수포는 천자 질손복의 하나로도 착용되고 귀족들의 연회를 묘사한 『집사(集史)』의 삽화에서 겉옷으로 착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토유물에서는 보를 달아 관복으로 착용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어 당시 몽골인들이 예복의 일종으로 즐겨 착용한 복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구성적 특징은 직령 우임의 깃에 여밈은 직령포처럼 깊게 여며지고 양 옆에 무를 달아 주름을 잡고 트임을 준 형태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문수사 백저포나 해인사의 반수포 유물과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는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첩리

첩리란 상의하상식(上衣下裳式) 구조를 가진 포(袍)로서, 치마의 허리부분에 많은 주름을 잡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첩리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출토 복식 중에 많이 발견되어 몽골복식과의 상관성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복식 중의 하나이다.

몽골인이 첩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낙양 이천의 원대묘 벽화와²⁰⁾ 『집사』의 삽화 등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두 점의 출토유물이 알려져 있다. 한 점은 동몽골 예순계묘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중깃의 직령 우임이고 상하연철형으로 치마의 앞허리 부분에는 주름이 없고 허리의 옆부분부터 뒷부분에 골고루 잔주름이 잡혀있는 특징을 보인다. 예순계는 칭기스한의 아우인 초치 카사르의 차남으로 1260년대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또 다른 한 점은 감속성 장현 왕세현 가족묘에서 발견된 것으로 허리 부분이 몸에 맞는 형태이고 허리 부분에 잔주름이 아닌 비교적 넓은 주름이 잡혀 있으며 허리에는 여밈을 위한 대가 달려있다.²²⁾ 이 유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방령(方領)의 깃 형태로 이러한 깃 모양은 원 태종이 입고 있는 포에서도 볼 수 있어 이러한 형태의 깃이 많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물의 또 다른 특징은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첩리의 구성과 비슷한 것이고 방령의 깃 모양도 16세기 정응두 묘에서 출토된 방령상의 깃에서 볼 수 있다.

(4) 요선오자

요선오자(腰線褌子)는 첩리와 마찬가지로 상의 하상식 구조를 가진 포이지만, 허리부분에 여러 줄의 요선(腰線)이 있다는 점이 첩리와 구별된다. 요선오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후달사략>에 “우임방령으로 옛날에는 모직이나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새물계는 저사금선(紵絲金線)으로 만든다. 색은 홍, 자, 감, 녹색이며 일월용봉(日月龍鳳)을 문양으로 사용하고 귀천의 차이가 없다. 마치 옛 심의의 제도와 같고 하령(下領)으로 우리의 도복(道服)의 깃과도 같다. 그래서 방령(方領)이라 한 것인데 사방상령(四方上領)은 한인(漢人)이 그리 한 것이다. 달주(韃主)와 중서향상(中書向上) 등은 입을 수 없다. 허리에 촘촘하게 가는 주름을 잡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심의처럼 12폭에 이르는데 달인은 주름을 많이 잡는다. 또한 홍자색의 비단을 꼬아 선(線)을 만들어 허리에 횡으로 놓는데 요선이라 이른다. 말 위에서 허리를 줄라매어 돌출되는데 화려하여 보기 좋다”는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있다.²³⁾ 또한 <원사>여복지에는 변선오(辮線褌) 즉 요선오자는 의위와 악공이 착용한다는 기록이 있다.²⁴⁾ 이들 기록을 종합할 때 요선오자는 첩리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허리에 요선을 둘러 돌출시켜 멋을 낸 복식이고 색상도 홍·자·감·녹색처럼 눈에 띄는 화려한 색상이며 저사금선과 같은 금직(金織)을 사용하고 일월용봉의 문양도 사용한 화려한 복식으로 의위나 악공과 같이 화려한 복식을 착용해야 하는 인물이 주로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꼭 의위나 악공이 아니더라도 시각자료 중에서

요선오자를 착용한 인물을 보면 사냥을 하는 무인이나²⁵⁾ 시종을 거느린 무장들이 착용한 모습²⁶⁾ 확인되어 다양한 계층에서 즐겨 착용한 복식으로 생각된다.

III. 몽골 요선오자 출토유물의 특성

1) 출토유물의 특성

몽골 요선오자의 출토유물은 현재까지 두 점이 알려져 있다. 한 점은 신강자치구 조노목제시 염호고묘에서 발굴된 것으로 13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 보고자는 이 유물을 황색 유견 직금금변 오자(油絹織金錦邊褌子)로 명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물의 겉감으로 사용된 직물이 몸판은 평직의 미황색 유견이고 수구와 깃, 어깨부위는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문양 중의 하나인 대칭한 그리핀이 시분된 직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감은 성근 백색 면직물(粗白棉)이 사용되었다. 허리부위의 요선은 실을 꼬아 변선을 만들어 허리에 붙여 만들었고 변선의 수는 30줄이다. 허리 오른쪽에는 작은 단추가 달려 있으며 허리에는 잔 주름이 있고 깃 아래부분과 옆 트임 부분에도 <그림3>과 같은 연금사(撚金絲)로 제작한 보살문양이 시분된 직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호 고묘의 요선첩리는 길이가 124cm, 소매길이가 94cm, 요선의 너비가 9.5cm이고 둘레는 88cm이다.²⁷⁾

또 다른 유물인 내몽골 명수묘에서 발견된 요선



<그림3> 염호고묘 출토 직금금 (文物, 1973, 10호, p.29)

<표2> 몽골 요선오자 출토유물의 구성적 특성 비교

	옷길이(cm)	화장(cm)	변선수(줄)	깃의 형태	여밈방법	겉감재질	안감재질
염호고묘	124	94	30	직령우임	작은 단추	미황색 유견과 두 종류의 직금금	성근 백색면직물
내몽골 명수묘	142	118.5	54	직령우임	6개의 고름	세 종류의 직금금	심한 손상



<그림4> 명수묘 출토 직금금 (趙豊, Treasures in Silk, p.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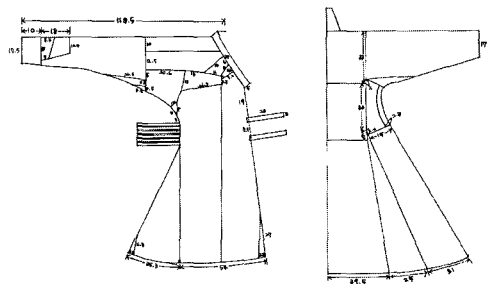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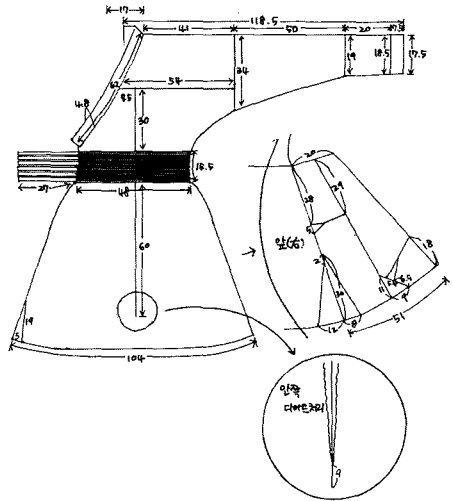
오자는 현재 내몽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2세기 내지 13세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재질은 연주보화문(連珠寶花紋)이 직금되어 있는 위금(緯錦)이고 직금금의 도안은 연주문 안에 2종의 변형된 보화화훼(寶花花卉) 문양이 있으며, 깃 아래부분과 수구에는 <그림4>와 같이 대칭한 사자문이 시문된 직금금으로 되어 있다.²⁸⁾ 허리에는 모두 54쌍의 요선이 있고 매 쌍은 3가닥의 S자 변선(變線)에 Z꼬임을 준 약 1mm 굵기의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변선은 상침으로 허리에 고정되었으며 상침한 바늘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다. 여밈은 오른쪽 앞길 허리부분과 왼쪽 앞길 허리부분에 달려있는 6개의 대로 여며지며 우임이고 깊게 여며지는 형태이다. 안깃에도 2쌍의 자색 대가 달려 있다. 출토유물의 구성적 특성은 <표2>와 같다.

2)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의 구조 분석

내몽골 명수묘에서 출토된 요선오자의 구성도는 <그림5>와 같다. 내몽골 출토 요선오자의 구성적 특징은 먼저 왼쪽 길 옆선에 한 쪽의 천을 붙여 뒤로 돌리고 그 위로 뒷자락이 오는 것으로 이는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요선첩리의 구성과 동일하다. 또한 오른쪽 앞길 중심과 뒷길 중심에는 <그림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긴 다이트를 잡아주었는데 허리부분의 여

분을 없애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허리에는 54쌍의 변선이 상침되어 있고 왼쪽 앞길에는 여밈을 위한 6개의 대가 달려있다.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그림5>의 오른쪽 앞길 겨드랑이 부위와 소매 부분, 그리고 왼쪽 앞길에서 뒷길로 이어지는 무 부분이 필요 이상의 많은 조각으로 재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많은 구성선은 옷감을 절약하겠다는 의도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의 각 부위별 계측치수는 <표3>과 같다.



<그림5> 내몽골 명수묘 출토 변선첩리

〈표3〉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의 부위별 계측치수

항목		계측치수(cm)	항목	계측치수(cm)
길이		142	허리너비	
화장		18.5	요선	수
고대		17		전체너비
겉깃	너비	62	무	위너비
	길이	4.8		아래너비
안깃	너비	4	겉고름	너비
	길이	4		
			속고름	너비

IV.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

1) 기능적 구조

몽골 요선오자의 첫 번째 구조적 특징은 상의하상의 구조, 뒤트임 그리고 다아트 등이 유목생활에 편리한 기능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 상의하상

몽골 요선오자의 상의하상식 구조는 활동에 필요한 여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는다. 특히 치마의 허리 부분에 많은 주름을 잡는 구조는 치마폭은 넓게 하여 활동성을 증대시키면서도 허리부위는 몸에 맞게 하여 너무 많은 옷감으로 인한 거주장스러움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요선오자의 상의하상식 구조는 유목생활을 하던 중세 몽골인의 생활활동상의 기능을 고려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 뒤트임

<그림5>에서 본 바와 같이 요선오자는 일상활동에 필요한 여유량이 충분한 구조인 상의하상식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앞길의 측면에 아래너비가 51cm이고 위너비는 20cm나 되는 한 자락의 천을 덧붙여 뒤를 넘기고 그 위로 뒷길이 내려오게 하여 마치 우리나라 도포의 전삼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 뒤쪽으로 트임이 생겨 말을 탈 때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러한 뒤트임은 말을 자주 타야하는 몽골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선오자의 뒤트임은 몽골

인의 기마생활에 요구되는 활동성을 고려한 기능적 구조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3) 다아트

요선오자에는 앞길 앞 중심선의 가슴부분부터 치마 하단 근처까지 <그림6>과 같이 다아트 처리를 하여 불필요한 옷감량을 제거해 주고 있다. 이러한 다아트 처리는 옷이 몸에 잘 맞도록 하여 움직일 때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는 기능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림6〉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의 다아트

2) 장식적 구조

몽골 요선오자의 두 번째 구조적 특징은 다수의 요선(腰線), 긴 화장, 고급직물 등의 특징들을 통해 장식적 구조라고 명명할 수 있다.

(1) 요선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요선오자에는 다수의 요선(腰線)이 허리부위에 상침되어 있다.

이는 요선오자를 입었을 때 옷을 몸에 꼭 맞게 하여 움직임이 편하게 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입은 이의 장식성을 극대화시키는 과시적인 측면이 더 강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요선은 한 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한 쌍으로 구성되어 상침되어 있다. 또한 한 개 한개는 비단실에 꼬임을 주어 만든 것으로 요선 한 개를 만드는 작업이나 요선 한 쌍을 만들어 요선오자의 허리 부위에 놓고 30~54쌍에 이르도록 상침하는 작업은 상당한 정교함을 요하는 기술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전문 장인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선오자의 요선은 과시적 기능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2) 긴 화장

몽골 요선오자 출토유물의 화장은 <표2>와 같이 94cm와 118.5cm로 지나치게 길다. 이러한 화장은 중세 몽골 직령포류의 화장 평균을 훨씬 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요선오자의 지나치게 긴 화장은 착용자가 노동이 필요없는 계층임을 암시하는 과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 고급직물의 사용

몽골 요선오자는 <그림3>과 <그림4>에서 본 바와 같이 편금사와 연금사 등이 삽입되어 제작된 당시로서는 최고급 직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석실 즉 직금금(織金錦)으로 제작되어 있다. 시문된 문양도 대칭한 사자문양이나 보살문, 대칭한 그리핀과 같이 서역적인 문양들로서, 당시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의 직물 장인을 이주시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동서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급직물을 요선오자에 사용한 것은 착용자의 부(富)를 과시하기 위한 구조적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불교적 세계관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염호고묘 출토 요선오자와 내몽골 출토 요선오자 모두 겹감에 3개의 직물이 사용되고 있고 <그림5>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의 경우 구성적 분석을 통해 오른 쪽 앞길 겨드랑이 부위와 소매 부분,

그리고 왼쪽 앞길에서 뒷길로 이어지는 무 부분이 필요 이상의 많은 조각으로 재단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조각으로 구성된 재단은 옷감을 절약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승려의 가사나 납의와 같이 중세 몽골인들의 불교 신앙에 의한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구조적 특징이라고 추정된다.

V. 맺음말

고대로부터 몽골인은 초원을 따라 말을 타고 이동하며 생활하던 유목민으로서 기마생활에 익숙하였으며 중세에는 칭기스 한이라는 지도자 하에서 발흥하여 전쟁을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계를 몽골이라는 이름으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갖는 중세 몽골인은 전쟁이나 사냥과 같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합한 복식을 선호하였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전쟁을 통하여 쌓은 부(富)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복식에 대한 기호가 반영된 것이 요선오자라고 할 수 있다.

중세 몽골인은 요선오자 이외에도 길이가 길고 깊게 여며지는 델(Del)이라는 직령포(直領袍)를 남녀 모두 착용하였다. 그러나 요선오자는 신분이 높은 남자나 화려한 복식이 요구되는 의위의 복식으로 착용된 남성 전용의 복식으로서, 전통적으로 착용되어 온 몽골의 델에 비해 보다 장식적인 기호가 반영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 요선오자의 출토유물의 분석, 특히 내몽골 명수묘에서 발굴된 요선오자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은 기능적·장식적 구조,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구조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몽골 요선오자의 기능적 구조는 기마와 사냥, 전쟁 등의 중세 몽골인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요선오자의 기능적 구조에 해당되는 특징은 먼저 상의하상식(上衣下裳式) 구조이다. 상의하상식 구조는 활동할 때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부여해준다. 두 번째의 기능적 특징은 뒤트임이다. 요선오자는 상의하상식 구조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에 요구되는 여유는 충분하지만 기마할 때의 움

직임을 고려하여 뒤에 트임을 주고 있다. 세 번째의 기능적 특징은 다아트이다. 상의하상식 구조에서 치마폭은 넓고 저고리는 좁으므로 저고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분량을 없애기 위해 마치 한 개의 프린세스 다아트처럼 앞중심선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이 다아트가 중세 봉골인이 고안한 것인지 아니면 동서 장인의 교류를 통한 서역 구성방법의 수용인지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몽골 요선오자의 과시적 구조는 당시 전쟁을 통하여 축적된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 만든 다수의 변선을 허리부위에 붙여 준 것이다. 이는 허리부분이 몸에 맞도록 하고자한 애초의 기능적 목적보다는 전문적인 장인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시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과시적 구조로 들 수 있는 것은 극도의 긴 화장이다. 명수묘에서 출토된 요선오자의 경우 화장이 무려 118.5cm로 웬만한 포의 길이보다도 길다. 이는 요선오자가 기마생활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된 복식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의 화장으로서 착용자의 위엄있는 신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과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과시적 특징은 값비싼 직물의 사용이다. 출토된 요선오자는 모두 금사(金絲)가 직물 전면에 삽입된 직금금이라는 당시로서는 최고급직물로 제작되어 있다. 이 역시 착용자가 그와같은 호화로운 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임을 보여주는 과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구조는 불필요하게 여러 조각으로 재단된 재단상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불교의 가사(袈裟)나 납의(衲衣)와 같은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며 당시 몽골인들의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별되는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은 명수묘에서 출토된 요선오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므로 몽골 요선오자 전체에 대한 보편화 작업을 위해서는 추후 다른 유물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권영숙, 이주영, 장현주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복식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성보학술총서 1*. 성보문화재연구원.
- 2)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원주번씨 출토유물 기증전-.
- 3) 『北史』蠕蠕傳. 목골려(木骨閭; Mogolui)라는 명칭도 보인다.
- 4) 『삼국사기』고구려본기1 시조 동명성왕조. 목거(黠居; Monggo)라는 명칭도 있다.
- 5) 이 외에 몽와실위(蒙瓦室韋), 말갑자(襍劫子), 매고실(梅古悉), 모갈실(謨葛失), 모할석(毛割石), 모계실(毛揭室), 모계실위(毛揭室韋), 맹고(萌古), 맹고자(萌古子), 몽국사(蒙國斯), 몽고사(蒙古斯), 맹골자(盲骨子) 등이 등장한다; 박원길. (1994). *몽골 고대사 연구*. 혜안, pp.19-21.
- 6) Ibid., p.221.
- 7) 룩판텐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p.148.
- 8) Luciano (1962). "Les Marchands Italiens dans L'Empire Mongol". *Journal Asiatique* 250, p.549.
- 9)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김문숙 (2000). “고려시대 원간섭기 일반복식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52.
- 10) 山東鄒縣文物保管所 (1978). 鄒縣元代李裕庵墓整理簡報. *文物* 4.
- 11) 임명미 (2000). 13세기 몽골 귀족 남자 출토복식 일습에 관한 고찰. *한몽수교 10주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몽골학회*.
- 12) Christoper, D. (1980). *Mission to Asi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7.
- 13) 데 바이에르 지음, 박원길 역 (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 서울: 혜안, p.77.
- 14) 項春松 (1983). 內蒙古赤峰市元寶山元代壁畫墓. *文物* 4, p.45. 圖十七 墓主人對坐圖의 묘주복식 참조.
- 15)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1999). 洛陽道北元墓發掘簡報. *文物* 2, p.52. 圖三 참조.
- 16) 데마이에르 (1994). Op. cit., p.80.
- 17) 長治市博物館, 王進先 (1985). 山西長治市捉馬

- 村元代壁畫墓. 文物 6, p.70. 圖十九 참조.
- 18) 內蒙古自治區文化廳文物處, 烏蘭察盟文物工作站 (1994). 內蒙古涼城縣后德勝元墓整理簡報. 文物 10, p.13. 圖七 참조.
- 19) 山東鄒縣文物保管所 (1978). Op. cit.
- 20)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1993). 洛陽伊川元墓發掘簡報. 文物 5, 圖板 5-2. 북벽묘주부부대좌도 중 뒤쪽 시위의 복식참조.
- 21) 임명미 (2000). Op. cit., pp.129-131.
- 22) 甘肅省博物館, 漳縣文化官 (1982). 甘肅漳縣元代汪世顯家族墓藏. 文物 2.
- 23) 宋 彭大雅 撰, 徐靈 疏證, <黑韃事略> 其服右衽而方領 舊以氈毳革 新以紵絲金線 色用紅紫紺綠 紋以日月龍鳳無貴賤等差 靈嘗巧之 正如古深衣之製 本只是下領 一如我朝道服領 所以謂之方領 若四方上領 則亦是漢人爲之 韃主及中書向上等人不會着腰間密密打作細摺 不記其數 若深衣止十二幅 韃人摺多耳 又用紅紫帛撚成線 橫在腰 謂之腰線 蓋馬上腰圍緊束突出 采豔好看.
- 24) <元史> 卷78 志第28 輿服1 儀衛服色 … 韃線襖制如窄袖衫 腰作鞞線細摺… 樂工襖制以緋錦 明珠琵琶窄袖 鞞線細摺.
- 25) <元人射雁圖> 속의 기마인물이 해동청을 손에 들고 요선오자를 착용하고 있다;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p.366. 圖十九 참조.
- 26) <事林廣記> 중 삼도 참조; 周錫保 (1984). Op. cit., p.360.
- 27) 王炳華 (1973). 鹽湖古墓. 文物 10, p.28, pp.33-34.
- 28) 夏荷秀, 趙豐 (1998). 達茂旗大蘇吉鄉明水墓地出土的絲織品. 中國絲綢博物館鑑定報告 X IV, pp.113-115.
- 29) 김문숙 (2000). Op. cit., p.155.